

‘광주의 중심’ 정호연, ‘1부리그 핵심’ 인정받나

오는 29일 K리그 대상 시상식 베스트일레븐 미드필더 후보 전남서는 윤재석 영플레이어 김종민·발디비아 베스트 도전

‘광주의 중심’ 정호연이 K리그1 베스트일레븐 미드필더 후보에 오르며 광주FC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시상식에 참석한다.

또 1부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전남드래곤즈는 윤재석과 김종민, 발디비아가 각각 K리그2 영플레이어와 베스트일레븐 공격수, 미드필더 부문에 도전장을 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투표를 개시했다.

수상 인원의 3배수로 구성된 후보 명단은 지난 18일 연맹 기술위원회(TSG)와 취재 기자, 해설 위원 등으로 구성된 K리그 개인상 후보선정위원회를 통해 꾸려졌다.

수상자는 감독(30%)과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합산해 최

종 선정되며 주인공은 오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인원은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해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선수상, 영플레이어상이 1명씩이며 베스트일레븐은 공격수 2명과 미드필더 4명, 수비수 4명, 골키퍼 1명이다.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세부 포지션인 좌·우와 중앙을 구분해 수상자를 가린다.

광주FC에서는 정호연이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던 광주는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선수상, 영플레이어상 등 9명의 후보를 대거 배출했으나 올해 파이널B로 떨어지면서 정호연이 단일 후보가 됐다.

정호연은 두 명을 선발하는 K리그1 베스트일레븐 중앙 미드필더 부문에서 고승범(울산HDFC)과 김봉수(김천상무FC), 세징야(대구FC), 오베르단(포항스틸러스), 이탈로바르셀루스(제주유나이티드)와 경쟁한다.

정호연은 올 시즌 35경기에 나서 5도움

을 기록했다. K리그1이 최종 라운드(38라운드)만을 남겨둔 가운데 두 경기에만 결장했고, 팀 내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3432분을 소화하며 광주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정호연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의 1부리그 승격 이후 2년 연속 시상식에 참가하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해 K리그1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뽑혔던 정호연은 주장과 미디어 투표에서 선두에 오르며 황재원(대구FC)을 제치고 주인공에 등극한 바 있다.

전남드래곤즈에서는 윤재석과 김종민, 발디비아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윤재석은 23세 이하·프로 1~3년 차에만 수상할 수 있는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두고 김정현(충북청주FC), 채현우(FC안양)와 경쟁을 펼친다.

김종민은 두 명에게 상이 돌아가는 K리그2 베스트일레븐 공격수 부문에서 유일한 토종 후보로 마테우스 올리베이라(FC안양)와 모파(천안시티FC), 페이살 물리치(수원삼성), 바차나 아라불리(경남FC), 레오나르도 후이즈(성남FC)를 상대로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발디비아역시 두 명을 선발하는 K리그2 베스트일레븐 중앙 미드필더 부문에서 김정현(FC안양)과 김종석(충남아산FC), 브루노 라마스, 임민혁(이상 부산아이파크), 홍원진(수원삼성FC)과 치열하게 맞붙는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에 사전 이벤트를 통해 300명 규모의 팬을 초청한다. 시상식 참석을 원하는 팬들은 22일까지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정호연이 오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에 K리그1 베스트일레븐 중앙 미드필더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서석고 검도부와 광주서석중 검도부 선수단이 지난 17~19일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서석고 검도부 제공

광주서석고 검도, 올 마지막 대회서 단체전 우승

추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광주서석중도 단체전서 준우승

광주서석고 검도부와 광주서석중 검도부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41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나란히 단체전 입상에 성공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서석고는 지난 17~19일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퇴계원고와 대표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1회전에서 원통고를 2-1, 2회전에서 총복공고를 2-1, 3회전에서 성남고를 1-0으로 연파한 뒤 준결승에서 정읍고를 2-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퇴계원고와 결승에서는 선봉 서규원과 2위 오승준, 중견 강현우가 모두 0-0으로 비긴 뒤 부장 정우민이 2-1로 이겼지만 주장 이정환이 0-1로 지며 대표전까지 향했다.

이로써 서석고는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와 제27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단체전 정상을 제패했다.

서석고가 세 차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석중은 같은 대회에서 중등부 단체전 준우승과 함께 옥하준이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서석중은 1회전에서 서창중을 3-1, 2회전에서 부원중을 2-1, 3회전에서 성남중을 3-2, 준결승에서 상인천중을 3-1로 연파했으나 결승에서 익산중에 1-3으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옥하준은 1회전에서 김형근(울산학성중)을 2-0, 2회전에서 김동우(문화중)를 2-0, 3회전에서 김승영(신곡중)을 1-0, 4회전에서 고종수(상인천중)를 2-0, 8강에서 서주환(원통중)을 2-1, 준결승에서 김민상(상인천중)을 1-0으로 연파한 뒤 결승에서 박효관(상인천중)을 2-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강산 광주서석고 검도부 감독은 “선수단 전원이 힘든 훈련을 잘 따라주면서 성실한 생활을 해줬기에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송찬국 교장 선생님과 선수들의 학교 생활부터 훈련까지 밤낮없이 지도한 남태운 코치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김도영, 은퇴선수협회 ‘최고의 선수상’ 수상

올 시즌 공격 부문 모두 TOP 10

프로 3년 차에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슈퍼스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사진)이 현역에서 물러난 선배들의 인정을 받으며 트로피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는 김도영을 올해 최고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 호텔리베라 청담 베르사이유홀에서 2024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과 함께 개최된다.

2013년 설립한 한은회는 야구 캠프와 티볼 대회, 야구 교실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한국 야구 저변 확대와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는 은퇴 선수들이 직접 선정하는 최고의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를 위한 시상식을 열고 있다.

김도영은 올 시즌 141경기에서 타율 0.347(544타수 189안타), 38홈런, 40도루, 109타점, 143득점,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을 기록했다. 득점왕과 장타율왕에 등극하며 올해 유일한 멀티 타이틀 홀더가 됐고 홈런 2위와 타율·안타·출루



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이자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다. 1950년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고즈루 마코토(쇼치쿠 로빈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도영은 대기록 퍼레이드의 피날레를 3할 타율과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퀀터플 트리플’로 장식했다. KBO 리그에서는 박재홍과 에릭 테임즈 단 두 명, 메이저리그에서도 19명 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의 기록이었다.

최고의 선수가 된 김도영과 함께 최고의 신인상에는 김택연이 선정됐다. 프로 새내기임에도 올 시즌 두산베어스의 클로저로 자리매김한 김택연은 60경기에 등판해 19세이브를 챙기며 역대 고졸 신인 데뷔 시즌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한은회는 올해부터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에서 시상식과 함께 장학회를 개최한다.

한국야구의 뿌리를 책임지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올해는 중·고등학교 선수 15명이 대상이다.

한규빈 기자

‘기록 산출 오류’ V-리그 올스타 팬 투표 재실시

남자부 5명·여자부 2명 후보 누락 폐표, 박정아·이예림 등 5명 도전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기록 산출 오류를 범하는 촌극을 빚으며 긴급 중단됐던 V-리그 올스타 팬 투표가 일부 후보군을 조정한 끝에 기존 투표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실시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 온라인 팬 투표를 재실

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팬 투표는 KOVO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일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이날 오후 4시부터 27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앞서 KOVO는 전날 오후 2시 팬 투표를 시작했으나 선수들의 기록을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이로 인해 V-리그 정규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포지션별 3배수로 후보를 선정했으나 누락된 선수들이 발생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와 이예림, 세터 이원정, 미들블로커 장위와 하혜진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후보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리베로 한다혜가 제외됐다.

한국배구연맹은 “팬 투표 대상 선수 선정에 기록 산출 과정에서 산식 오류를 발견해 올스타 팬 투표를 긴급 중단하게 됐다”며 “공정성을 위해 앞서 진행된 투표를 무효화하고, 일부 후보군을 재선정하게 됐다. 팬 투표에 참여해 주신 배구팬들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규빈 기자